

군산 야행 등불따라 걸으며 낭만 즐겨요

12일·13일 오후 6시~밤 11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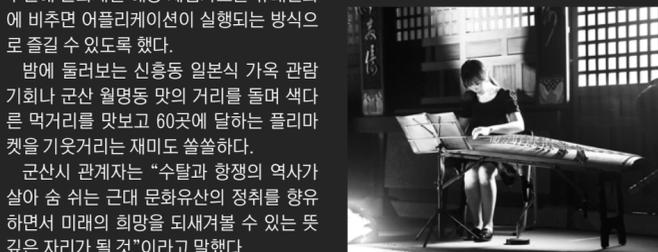
지난해 관광객 9만명 다녀가
산사음악회·근대박물관 체험
맛의거리·문화장터 운영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로 인기



마당놀이 수탈전



프리마켓



산사음악회



고우당전경

한여름밤, 도시를 걸으며 역사문화자원을 둘러보고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달빛야행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근대역사문화관과 월명동 일대에서 펼쳐지는 군산야행(夜行)이다. 1899년 개항 이래 외부 문물이 활발하게 유입되면서 일제 수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원도심 일대에서 펼쳐지는 행사는 점에서 눈길이 쏠린다. 신흥동 일본식가옥 달빛공연과 동국사 산사음악회, 근대박물관 체험 등으로 맛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길 수 있다.

군산야행(夜行)은 오는 12일과 13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다녀간 관광객들만 9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올해도 8가지의 테마로 50개 프로그램을 마련, 색다른 밤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게 군산시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야로(夜路), 한여름 밤 문화유산 등불거리를 거닐다 ▲야사(夜史),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역사 이야기 ▲야화(夜畫), 한여름 밤에 보는 문화유산의 정취 ▲야설(夜說), 밤에 펼쳐지는 문화공연 ▲야경(夜景), 밤에 비춰보는 아름다운 군산의 문화유산 ▲야식(夜食), 밤에 즐기는 맛의 거리 ▲야숙(野宿), 군산 역사 이야기 속 하룻밤 ▲야시(夜市), 근대역사가 살아있는 문화장터 등으로 나누어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다.

군산시 관계자는 “수탈과 항쟁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근대 문화유산의 정취를 향유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되새겨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해 10월 목포를 방문한 문화재청장에게 정광 정혜원의 등록문화재 지정을 요청했다.

정광 정혜원, 문화재로 지정된다

일제강점기 사찰 양식 보존

일제 강점기 전통 사찰인 정광 정혜원(목포시 문화유산 제 20호)이 문화재로 지정된다.

정광 정혜원은 고은 시인과 ‘무소유’로 유명한 법정 스님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곳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승려였던 고은 시인이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정혜원으로 포교를 나왔다가 전남대 상대 학생이었던 박재철(법정 스님의 속명)을 만나 불교로 귀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문화재청은 8일 정광 정혜원을 등록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광 정혜원은 1918년 세워진 사찰로 불당과 요사채(스님들이 기거하는 곳)

가 지방형(사각형) 중정을 중심으로 한 건물 내에서 예불공간과 생활공간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등 일본식 사찰의 독특한 평면구조와 공간구성을 보여주는 점을 들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혜원 화림 주지스님이 건립 당시의 원형 사진과 장건 문서를 일본에서 확보한 게 문화재 지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률 시장도 지난해 나선 문화재정장을 만나 문화재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영광 원불교 신흥교단 대각전’, ‘광주 관덕정’, ‘수원 구 소화(小火)초등학교’, ‘수원 구 부국원’, ‘통영 소반장 공방’ 등 6건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전주 맥주파티서 제대로 마시자”

10~12일 가맥축제 개최

300여곳 영업... 관광객 각광

전주의 으뜸문화인 ‘가맥’(가게 맥주)을 알리기 위한 가맥축제가 10일 열린다.

사흘간 열리는 올해 가맥축제는 기존 전통문화의 전당에서 전주종합경기장 주차장으로 옮겨 펼쳐지며 가맥 콘서트 및 공연, 장기자랑, 가맥 안주 판매부스 운영, 각종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가맥’은 ‘가게 맥주’의 줄임말로 전주에서 발전한 독특한 음주문화다.

전주에서의 ‘가맥’ 문화는 1980년대 초반 전주 경원동 일대 작은 가게들이 탁자와 의자 몇 개를 놓고 맥주를 팔기 시작하면서 태동했다.

역사로 보자면 30년을 훌쩍 넘었을 정도로 이제는 전주만의 독특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

안주는 갑오징어나 황태, 계란말이,

땅콩 등 간단하게 맥주를 마실 수 있는 것들로 갑오징어는 망치로 두드려 살을 부드럽게 해 내오는데, 가게 집마다 갑오징어를 찢어 먹는 양념장이 달라 맛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전주 가맥 집은 300곳 이상이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맥주 한 병값이 2500원으로 서민들이 즐겨 찾는다. 여름에는 야외에 놓인 탁자와 에어컨이 들어진 실내까지 갖추고 있어 열대야에 잠 못 드는 사람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특히 ‘가맥’ 명소는 SNS에 소개되면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마저 생겨날 정도다. 지난해 축제에는 국내외 관광객 3만여명이 찾았다.

가맥축제조직위원회는 축제 기간, 병뚜껑 1개당 300원씩의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맥축제는 전북을 찾는 관광객에게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마케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원도 약산면 득암리 해수욕장점 2481㎡ 별장적합 2억4천
- 담양 무정면 오례리 1495㎡ 창평에서 15분 4800만원
- 곡성 옥과읍 죽림리 대지 311㎡ 은행 2500 매도 5500
- 원도 약산면 해안가 대지 617㎡ 팬션용 주택과 낚시배 1억 1500
- 화순군 동북면 가수리 1877㎡ 요양주택·사찰도 적합 5300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원도 고금면 땅 2672㎡ 주택 137㎡ 전원생활적합 1억8천
- 아파트 남구 서동 제일파크 7층 105㎡ 1억1500 임대가능
- 아파트 북구 오치동 혁신 78㎡ 9층 올리모델링했음 1억3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골목 대지 294㎡ 정원과 주택2동 2억3천
- 월산동 원룸 중 3층 23㎡ 독립생활적합 2100만원

투자·매도·교환

- 고흥 동일면 6891㎡ 팬션있고 요양시설·연수원 등 적합 10억
- 전원주택지 담양 금성면 대성리 14479㎡ 담양호 인근 2억
- 담양 무정면 땅 4297㎡ 집 147㎡ 사찰·화실·별장적합 6억천
- 광산구 송산동 7725㎡ 빌라·다세대적합 12억3천
- 전원주택지 담양 금성면 대곡리 산 70487㎡ 11억 7천
- 공정적합 담양 봉산면 제월리 3501㎡ 1억1500만원
- 담양 금성면 429000㎡ 전원주택단지 적합 도로중음 34억
- 담양군 봉산면 대지 10692㎡ 다가구·빌라·참고 적합 12억5천

상가건물

- 유동 모델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남구 월산동 신축중인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1층 상가, 2층 원룸과 투룸, 3층 안집 살면서 임대생활적합 5억6천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 흥진로4가 오지 대지 261㎡ 건평 1128㎡ 전세3억 월 천만원수익 25억
- 유동 2층식당건물 대지 598㎡ 건평 334㎡ 건물 상태 좋음 9억6천

급매

- 영암 삼호읍 용당리 전 4628㎡ 공시기 2억 3천 매도 2억 6백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싼!
전
답
입야

바로 삽니다!
(주) 오천개발
010-3605-5000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9층 95㎡(28평)
- 보400/월47(임대중)
- 수익률 12% 이상
- 매매 6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8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0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급매

- 13층 49㎡(14평)
- 보200/월25(임대중)
- 수익률 12%이상
- 매매 3100만원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33평)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